

부산지역 무증상 조리종사자에서 분리한 노로바이러스의 분자역학적 연구

I |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부산지역 무증상 조리종사자에 대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원인바이러스의 대표인 노로바이러스의 보유 실태 및 분자역학적 규명으로, 식중독 발생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

II | 주요 연구내용

- 연구기간 : 2015년 1월 ~ 12월(1년)
- 연구대상 : 관내 4개 보건소에 방문한 조리종사자들의 직장도말 검체
- 연구대상 심의 : IRB 심의면제(과제관리번호 : P01-201412-BM-07)
- 연구내용 및 방법 : Norovirus GI, GII 분석
- Realtime RT-PCR, Conventional RT-PCR, Sequence Analysis

III | 연구결과

- 부산지역 무증상 조리종사자의 검체 총 2,174건 중 49건(2.3 %)이 Norovirus 양성, 이 중 분리된 바이러스는 42건(1.9 %)이며, Norovirus GI이 14건, Norovirus GII이 28건으로 Norovirus GII의한 감염율이 높음
- 월별로는 1월, 2월이 검출이 많았고, 6, 8, 9, 11월에는 검출되지 않았음
- 유전형 분석결과 GI형이 6종, GII이 6종으로 총 12종의 genotype을 확인
- Genotype 결과로 GI group에서 6종, GII group에서 6종 genotype으로 총 12종의 genotype이 확인되었으며, GII.17형이 15건(36 %)로 월등히 높았고, 그 다음으로 GII.4형이 7건(17 %), GI.5형 4건(10 %) 순이었음

IV | 정책연계방안

- 식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범국가적인 노력에 따라 식품위생법 87조(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)에 따라 신설 기구를 설치하여 향후 조리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운영에 기초자료 제공

V | 활용계획

-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·경제적 피해예방을 위해 학교, 기업체 등의 집단 급식소 및 외식업 산업협회 등에서의 적극적인 식중독 예방 교육자료 작성 및 안내문 배포 실시